



예술가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손가락이다

☞ 손석 (작가)

나는 작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지향한다.

현대 문명의 중심세력은 눈에 보이거나 측정될 수 있는 것만을 관心に 두며, 보이지 않는 마음상태의 변화나 다른 영적인 현상은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와 다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과 그의 삶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감각에 인식되고 측정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무시한다면, 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측면을 잃어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관심을

두는 무신론적 유물론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골로새서 1:16)다고 말하며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이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

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

웅장한 대우주, 아름다운 꽃과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물 속의 고기들, 철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산천초목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와 조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자연계뿐 아니라 예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신성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예술행위를 하는 예술가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아름다움을 선망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선한 예술을 창조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귀한 소명이며,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을 생각할만한 높은 지혜를 가질 수 없기에 예술작품의 창작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작품의 방법론과 그 테크닉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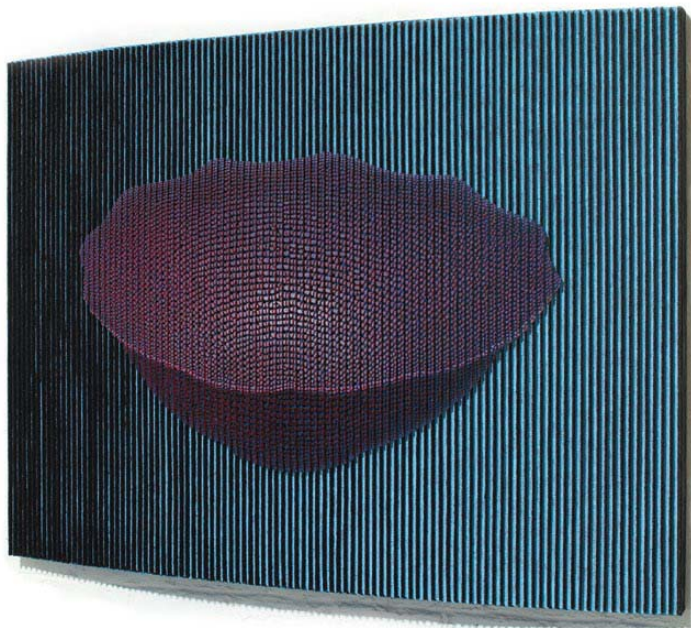
사람은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듯,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벗어난 하나님의 예술가로서 나의 존재는 물론 나의 모든 작품들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하나의 지표(index)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이 태양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이 아닌 태양을 주목하듯, 나는 나의 모든 작품과 활동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나의 작품을 대하는 사람들이 나의 작품을 통해 내가 아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의 창작활동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기 원한다.

나는 나의 모든 예술활동의 결과물들이 협소하고 타락한 나의 내면에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지시체(index)가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만한 선한 것이 없다.

따라서 나의 작품 활동에 있어 하나님과의 동행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다. 나에게서 일상적인 삶은 물론 예술적 표현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다. 예술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예술은 예술가의 깊은 영성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하고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예술가에게 성령님의 영감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거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재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고 깊으시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작품활동을 하다보면, 종종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나는 주저 없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선포(?)한다.

파리의 예술 풍토는 무신론과 이신론에 기초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대답을 이상하고 신기해한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그들이 제작하는 작품들 속에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느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는 한다.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들의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며 자신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 일할 뿐이다.

우리는 예술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음을 보편적 인류 역사는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슬하게 보아왔다.

원래 예술에는 인간의 죄악 됨을 밝혀내고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기독교 예술가는 이 죄 많고 타락한 모순된 세계의 체계들에 의해 제공되는 것들보다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 억압된 우리의 현실 상황에 위로를 주며 타락한 인간과 세상에 대항하여 풍요로운 삶의 가능성과 영적 차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타인과 함께 나누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프랑스 북부의 브루타뉴 해변에 갔다가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홀로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며 나의 예술가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아름답고 선하게 지어졌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초의 판단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미적 판단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중 오직 타락한 인간만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 역시 오직 나와 내 가족 중심, 이 땅에서 좀 더 풍족하고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여 내 힘과 능력으로 행복을 쟁취하고 예술마저도 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저급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나의 예술가로서의 사명은 나의 예술활동을 통해 창조주 되시며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예술 작품을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는 것이다. 작가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이다.



손석 1995년 이후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 홍익대 미대 졸업 후 파리8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작품활동으로는 개인전으로는 2013 마젤갤러리 초대전(브뤼셀, 벨기에), 2011 가나아트센터 초대전(서울), 마젤갤러리 초대전(브뤼셀, 벨기에), 2009 홍콩서울옥션 개인초대전(홍콩), 2007 갤러리 가나보브르그(파리, 프랑스), 인사이트센터 초대전(서울), 2002 파스스 파리(파리), 2001 에스파스 아르세날(이시레물리노, 프랑스)이 있고, 단체전으로는 2014 백자예전(서울미술관), 2013 가나화랑 창립 30주년 전속작가전(가나화랑, 서울) 등이 있다.